

# 동부대우전자 또 주인찾아 나서야 하나

### 동부그룹 편입 1년2개월... 재정위기에 그룹 축소

## “광주공장에 1500억 투자 의향” 물거품

광주에 유일한 국내생산기지를 둔 동부대우전자가 동부그룹에 편입된 지 1년 2개월 만에 또 다시 표류할 위기를 맞고 있다. 모기업인 동부그룹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하면서 동부대우전자는 또다시 ‘새 주인’을 찾아야 할지 모를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해 초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던 당시 동부그룹은 광주공장에 1500억원 규모의 투자의향까지 비추며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갑작스런 모그룹의 위기 상황으로 이 역시 물거품이 됐다.

2월 가전업계에 따르면 동부그룹은 최근 계열사인 동부제철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가면서 단기 유동성 위기는

넘겼지만 애초 밝혔던 자산매각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동부대우전자까지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동부대우전자의 지분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9.2%)과 계열사들이 50.6%를 보유하고, 나머지 49.4%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중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김 회장의 지분은 사실상 담보(에스크로 계좌 예치)로 잡혀 있어 자금난이 지속할 경우 경영권 방어도 위협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지난해 2월, 13년 간의 워크아웃 기간을 거쳐 동부그룹에 인수된 대우일렉트로닉스는 같은 해 4월 동부대우전자로 사명을

바꾸고 의욕적인 출발을 했다. 4월 말 첫 신제품으로 대용량 스마트냉장고 ‘클라세 큐브’를 출시했고 5월에는 13년 만에 임직원의 월급을 10%가량 인상하기도 했다.

이후 잇따라 틈새시장을 노린 냉장고와 에어컨, 전자레인지, 세탁기를 판매하며 증납미와 중동, 유럽 등에서 시장을 키워왔다. 특히 지난 5월엔 삼성전자 출신 최진균 부회장을 새 대표이사로 영입하고, 5년 만에 TV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었다.

동부대우전자의 유일한 국내공장인 광주공장도 동부 인수 뒤 큰 빛을 보지 못했다. 지난 1985년 설립된 광주공장은 현재 5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며 연간 350만대의 냉장고와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대우일렉이 해외 공장들과 함께 연간 생산하는 생산량의 40%가량을 차지한다.

동부대우전자의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동부 인수 뒤 제품 생산라인을 대부분 교체하기 위해 금형개발에 들어갔으나 10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면서 신제품 개발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며 “약속했던 만큼의 투자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모그룹이 이슈가 되면서 약간의 우려의 시선이 있긴 한데, 영업이나 생산에 문제가 없고, 원래 계획대로 TV 출시도 하반기 그대로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 대표이사가 온 만큼, 분위기가 쇠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동부대우전자는 매출 1조 7600억원, 영업이익 19억원을 각각 달성했다. 동부대우전자는 2017년까지 매출액 5조원, 영업이익 3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15.28 (+16.28)
- ▼ 금리 2.58% (-0.08)
- ▲ 코스닥 549.03 (+4.13)
- ▼ 환율 1009.20원 (-2.50)

## 환율 1010원선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 1010원선이 6년 만에 무너졌다. 외환당국이 장 초반부터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환율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보다 2.5원 내린 달러당 1009.2원에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101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증가 기준으로 2008년 7월 29일(1008.8원) 이

후 6년 만에 처음이다.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0.1원 오른 1,011.80원으로 장을 시작했으나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지표 호조로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강해진 영향을 받아 이내 하락 반전했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 3101억원 어치를 순매수한 것도 환율 하락에 힘을 보탰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690억 들여 ‘미래형 에너지발전사업’ 추진

## 수완지구 1만7500가구 사용 전력 생산

광주 수완지구에 수백억여원을 투자한 ‘미래형에너지 발전사업’이 추진돼 1만 7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2일, 에너지 전문기업인 수완에너지(주)와 대명 GEC(주) 등 2곳의 회사와 최근 MOU를 체결해 수완지구 일대에 ‘스마트그리드 기반 분산전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발전시스템은 사업비 690억원을 들여 수완지구 열병합 발전소 인근에 건립할 예정으로 이달부터 건립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시간당 12.5메가와트(MW), 연간 99기가와트(GW)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

는 1만 75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이다.

광산구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4만 6000기가칼로리(Gcal) 규모의 열을 수완 및 하남2, 3지구, 첨단2단지 등의 지역난방용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특히, 경제적 이득과 함께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분산전원시스템이 들어서면 숲 3150헥타르(ha) 조성효과와 7500대 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 연간 4만 톤을 저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발전소 인근 지역에 국비를 지원받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혜택도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여름 휴가엔 ‘플리플랩 슬리퍼’ 2일 백화점 직원들이 여름 휴가 패션 아이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슬리퍼 형식의 신발 슬리퍼가 휴가 패션 아이템으로뿐만 아니라 일상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다. <광주신세계 제공>



김장학 광주은행장(왼쪽)이 2일 박병기 제31사단장과 ‘트트진짜사나이적금’ 홍보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 광은 ‘트트진짜사나이 적금’ 출시

#### 병역명문가·군인 우대금리

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이 3일부터 병역명문가 본인 및 가족, 입대예정자를 포함한 현역 군인들에게 금융편의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트트진짜사나이적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신상품 출시에 맞춰 광주은행 김장학 행장은 2일 오후 2시, 지역 향토부대인 제31사단(사단장 박병기)을 찾아 무더위 속에서도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수백 100여통을 전달했다. 더불어 박병기 사단장은 직접 신상품에 가입해 ‘트트진짜사나이적금’의 1호 가입자가 되기도

했다.

새로 출시된 ‘트트진짜사나이적금’은 병무청이 선정하는 ‘병역명문가’ 및 국가간보를 위해 묵묵히 자기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군인 장병들의 목돈마련, 전역준비 등을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이 상품의 적립 한도는 월 30만원으로 1년제 연2.8%, 2년제 연3.0%, 3년제 연3.2%의 기본이율을 제공한다.

또한 병역명문가 본인 및 가족에게는 연2.3%, 현역 군인 및 입대예정자에게는 연2.0%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대 5.5%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집배원 주5일 근무... 우체국택배 토요일 배달 안한다

내달부터 집배원의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과거 우편 배달에 한정된 집배원 토요일 휴무를 다음달부터 우체국택배로 확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요일에 접수한 우체국택배는 그 다음주 월

요일에 배달한다. 다만 대국민 홍보 기간인 이달 말까지는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택배에 대해 이전처럼 토요일에도 배달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2005년 7월부터 토요일에는 우편배달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새얼굴**

**“호남 중기 온-오프라인 마케팅지원 강화”**

**전 영 달 중기진흥공단 광주본부장**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를 조기에 안정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장에 부임한 전영달(56) 신임 본부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주력사업인 성장단계별 금융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온-오프 라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호남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 본부장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지난 1985년 1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사해 협동화 사업처장과 감사실장, 서울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합리적인 업무처리와 원만하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해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

www.yh-bus.com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힐링여행

회사 출 · 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예향 고속관광**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TEL.062.944.5775 FAX.062.944.5995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혹석사거리)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